



세계화와 고등교육의 아시아적 가치*

이 정 규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새로운 세기의 화두는 단연 세계화이다. 물론 세계화에 대한 본격적인 담론과 기운은 지난 세기 말엽부터 구미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금세기 벽두에도 세계화에 대한 논의와 활동이 다방면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세계화의 움직임은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다양하면서도 폭넓게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가마다 특이한 정치·경제적 상황과 여건, 역사·문화적 전통과 배경, 종교와 사상 등으로 인하여 서로의 견해와 이익에 차이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세계화는 불가항력적인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며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각 국가는 자국의 이해득실을 가늠하면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 내지 소극적으로 도전하거나 실제적 혹은 피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도전과 대처 혹은 응전의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요인이 세계화의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교육은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면서 세계화 촉진의 핵심 매체라고 볼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과 첨단 과학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

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세계화의 주요 요인으로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로 인한 다극화 추세 및 무역과 생산의 세계적 시장화를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세계화를 활성화하고 있는 동력의 기반은 정치·경제적 역동성과 추진력이라는 것이 자명하지만, 세계화를 가속·확산시키는 것은 첨단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세기에 구미 열강에 의하여 식민통치를 받거나 영토의 전부 혹은 일부를 외세에 의하여 강점당한 경험이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고등교육은 자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물론 세계화의 추세에 대처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자 방편이 되고 있다. 세계화의 큰 흐름에서 정치와 경제 영역과 더불어 교육과 문화 영역 또한 본류(本流)를 이루고 있다. 교육은 세계화의 본류의 하나로서 세계화에 필요한 기본 정보와 매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은 이미 세계화의 흐름에서 하나의 지류(支流)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문화 또한 세계화의 흐름에서 파생되고

*이 글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2)에서 실행한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협약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연구 논문을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있는 문화의 보편화 현상에서 각 민족국가의 정체성 유지와 특수성 확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중적 가치 양상을 나타내면서 또 다른 본류를 형성하고 있다. 금세기에 이르러 세계화의 조류는 경제적 흐름으로부터 문화적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는 듯한 국면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문화사의 관점에서 비록 아시아 지역이 고대 문명의 발원지로서 우수한 문화를 지녀 왔으나 근세에 이르러 산업화에 앞선 서구 열강의 정치, 군사, 경제적 힘에 밀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식민통치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식민지배의 역사적 유산으로 인하여 정치, 군사, 경제력이 약화되었음은 물론 교육과 문화의 영역마저도 직·간접적인 침해를 받거나 쇠락하게 되었다. 지난 세기 중엽에 이들 대부분의 국가와 민족들이 비로소 제국주의자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자신의 고유 문화를 회복하고자 민족 문화의 중흥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국가경제 발전정책에 편승하여 고등교육이 급속하게 팽창되었으며 민족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이 점차 제 모습을 찾게 되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발전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창달하는 일은 지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공영을 위하여 아시아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시아 문화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정립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를 맞아 더욱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I. 세계화와 아시아의 고등교육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나 세계화

(globalization)는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조류임에 틀림없다. 고등교육에서도 두 용어의 개념과 정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뚜렷한 차별성을 두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서구의 비교/국제고등교육 학자들(Altbach, Spring 2002; de Wit, 1999; de Wit and Knight, 1997)은 국제화와 세계화를 구별하고 있다. Altbach(Spring 2002)에 의하면,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란 국가가 주도하는 특정 정책들과 주도적인 사례들 그리고 세계화 추세에 대처해 나가는 개별 대학 기관 및 시스템을 의미하는 반면, 세계화란 국가 간의 상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향 혹은 흐름으로서 대규모의 고등교육, 학생·교수·교학력자를 위한 세계 시장,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기술이 닿는 세계적 지역 등을 포함한다(p. 6).

Altbach(Spring 2002)는 세계화를 국제화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는 반면, de Wit와 Knight(1997)는 국제화와 세계화의 두 용어에 대하여 명확한 구별을 하기보다는 과정과 수단의 차이로 보고 있다. de Wit(1999)는 국제화의 주론적(主論的) 경향이 정치, 문화, 교육적 요소에서 경제적인 요소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두 용어에 대한 정의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de Wit와 Knight(1997)의 견해에 의하면, 고등교육에 있어서 국제화란 국제적 혹은 상호 문화적 차원의 것을 교육기관에서 교육이나 연구 활동 및 봉사 기능으로 통합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p. 8).

de Wit(2002)의 저서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urope*(미국과 유럽에서의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의하면, 고등교육에 있어서 국제화의 연원은 중세 대학에 두고 있으나, 국제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동기 부여를 받게 되었다고 주

“

세계화를 완성화하고 있는 동력의 기반은 정치·경제적 역동성과 추진력이라는 것이자명하지만, 세계화를 가속·확산시키는 것은 첨단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

”

장한다.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하에서의 정치는 미국의 국제화 움직임에 자극하였으며, 또한 유럽의 국제화를 자극하여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을 태동시켰고, 유럽내 국가 간의 자유로운 왕래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에 유럽인이라는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de Wit(2002)가 미국과 유럽에 있어서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논의하고 있는 반면, Peter Scott(1998)의 편저인 *The Globalization of Higher Education*(고등교육의 세계화)에서는 유럽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에서 일고 있는 국제화 추세를 비교교육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위의 두 저자는 경제 시장의 피할 수 없는 요구가 현재 폭넓은 국제화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자면, 대학과 학문제도를 외국 학생이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고치는 것, 다른 외국 대학과 연계성을 맺는 것, 모국어에 추가하여 영어로 가르치는 것,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 지적 자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전략을 채택하는 것 등의 형태이다(de Wit, 2002; Scott, 1998). Davis(2002)나 Hayward(2000) 그리고 영국의 국제교육협회(The Council for International Education, 2000) 발행의 저서나 연구보고서에 의하

면, 유학생들의 전반적인 이동 추세는 대체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 산업국가로 흐르고 있다. 특히 50만 명 이상의 외국 학생들(이들 중에서 55%는 아시아, 15%는 유럽)이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연간 110억 달러 이상의 유학 비용을 대부분 자신이나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Altbach, Spring 2002; Davis, 2002). 미국이 국제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유럽은 미국과 달리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 간의 일체감과 유대감을 확립하고, 교육과 노동 시장을 통하여 결속을 강화하며, 또한 유럽 학생들의 대학 간 이동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학위 구성이나 프로그램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de Wit, 2002).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미국과 유럽에서의 고등교육의 세계화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선 고등교육의 세계화를 국가가 주도하기보다는 대학 스스로가 해외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국제화 프로그램과 유학 제도를 마련하는 반면,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국제적인 학위 프로그램(예를 들면 ERASMUS나 SOCRATES)¹⁾을 제공하고 대학 간 교류와 유대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고등교육의 국제화 정책은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의 고등교육

1)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있는 유럽공동체 교육프로그램이다.

의 발전에도 선례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고등교육협약체 구축을 위한 시시점을 던져 주고 있다. 물론 아태지역은 유럽과 달리 보다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배경과 경제·과학적 격차로 인하여 연합체를 구축하여 공조와 조화를 이루기엔 부단한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접 국가 및 지역간에 협력체를 구축하여 상호 발전과 공존을 도모하고 있는 각국의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아태지역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를 중심으로 한 경제기구를 보다 발전시켜 교육의 영역까지 포함하여 유럽연합체의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적인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네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고등교육 학위인정제도 연구 사업은 아태지역 고등교육을 연합하여 국제적인 학위 프로그램을 구안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고찰해 본 것처럼 국제화나 세계화가 서구에서 발원된 만큼 지금까지 국제화나 세계화의 목소리와 움직임은 서양이 주도해 왔다. 이로 인하여 선진 서구의 산업국가들이 그들의 경제력과 과학 문명을 앞세워 세계화를 이끌어 오면서 정치·경제적인 힘과 이익을 베풀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계화의 흐름에 뒤늦게 편승하거나 이에 편승하지 못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스위스의 세계경영발전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IMD)에서 발간한 2001년도 세계 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1)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 연감에서 나타난 것처럼 세계화가 자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항목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싱가포르(4위 : 7.851)와 홍콩(7위 : 7.556) 및 호주(23위 : 5.814)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아태지역 국가들(조사 대상 49개국 가운데 30위 이하인 하위 수준)은 세계화로 인하여 자국의 경제에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Globalization)에 있어서는 싱가포르(2위 : 7.851), 홍콩(3위 : 7.667), 타이완(5위 : 7.367), 일본(16위 : 6.078), 한국(20위 : 5.976), 인도네시아(22위 : 5.933), 중국(23위 : 5.889)이 상위 및 중간그룹에 포함되어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태지역이 서구 주도의 세계화 흐름에서 세계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아태지역에 있어서 세계화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이 지역의 고등교육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은 국가 전체 인구 수에 대한 고등교육의 성취도에 있어서 서구 선진국가들과 같이 상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²⁾

그러나 대학교육의 경제에 대한 경쟁력에 있어선 싱가포르와 호주 및 타이완을 제외하고는 중간 이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이미 선진 산업국에 속하는 일본은 차치하고, 산업화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고등교육이 경쟁력 면에서 최하위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이들 두 국가의 고

2) 인구 수에 따른 고등교육의 성취도에 있어서 일본은 36개 조사 대상국가 중에서 1위인 캐나다(46.0%) 다음으로 45.0%로 2위, 한국은 34.0%로 5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호주는 28.0%로 12위, 뉴질랜드와 필리핀은 26.0%로 15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5.9%로 35위, 인도네시아는 3.0%로 36위를 나타내고 있다(IMD, 2001, p. 437).

등교육의 양적 팽창이 이제는 질적으로 고양되어야 할 시점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스위스 세계경영발전연구소(IMD, 2001)의 연구 결과는 비록 경제적인 면에 치우쳐 있지만 세계화라는 문명사적 흐름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의 대처 현황과 입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세계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고양시키는 국가가 있는 반면, 대부분의 아태지역 국가들은 서구 선진 산업국가에 비하여 세계화 조류에서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일본이 국제화로 인하여 자국의 경제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과 경제적 요구에 고등교육이 적합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부응하지 못하는 점은 재고(再考)해 볼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반적으로 아태지역은 세계화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자국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아태지역 국가 특히 중국,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과 같은 산업화 진행국가 혹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는 많은 학생들이 구미(歐美) 선진 산업국(특히 미국)에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있다. 비록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화의 후발 국가인 이들 나라들이 서구 선진산업국들의 강력한 경제력과 과학 문명에 밀려 피지배적 혹은 종속적인 입장에 처하기도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선진 문물과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 자국의 교육수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물론 대내적으로는 외국의 학문에 지나치게 의

존함으로써 학문의 종속성과 사대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두뇌유치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의 긍·부정적인 측면이 교차되면서 물질과 문화적 경쟁에서 후발 국가들은 자체의 내부적인 갈등과 모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갈등과 모순 현상은 불가피한 일이다. 특히 문화적, 사상적, 종교적 상이함에서 오는 가치관의 차이는 이질성과 동질성, 다양성과 정체성,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양극에서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된다.

II. 고등교육의 아시아적 가치

1. 아시아적 가치

1) 아시아적 가치의 개념과 아시아적 가치의 출현

아시아적 가치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개념 정의도 가치에 대한 정의만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내외 혹은 동서양의 이론가들이 그들이 속한 문화적 영역에 따라 주관적 편의성 혹은 편견에 의하여 소위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담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주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적 가치'는 일본, 한국, 중국이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과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말레이시아 등이 속한 동남아시아 지역이 주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유교문화권이 중심이 되고 있다.

3) 스위스 IMD(2001)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994년과 1999년 사이에 미국은 124,000명의 인도인, 68,000명의 중국인, 57,000명의 필리핀인, 49,000명의 캐나다인, 42,000명의 영국인 고등교육 학위 소지자를 유치하였다(p. 24). 2000년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온 20,000명에 달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75,000명에 이르는 중국인과 인도 학생들을 유치하였다(p. 24).

이들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는 유교 혹은 유학이라고 하는 종교 내지는 정치윤리 사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아시아적 가치란 유교문화권에서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즉, 아시아적 가치란 아시아 지역 특히 유교문화권 혹은 이 지역 아시아인의 행위 양식이나 일의 목표 및 수단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규범으로서 역사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개념화 내지 구체화된 경향이나 신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아시아적 가치는 언제 어디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는가? 정확한 근원은 알 수 없지만 유교적 가치로 그 논의의 범위를 좁힌다면 오래 전에 주로 서양의 종교인이나 철학자 등을 통하여 서구에 소개되거나 논의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서구의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경제 침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던 것과는 달리 일본의 경제대국으로서의 부상과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한국의 신흥공업국가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 일련의 서구학자들은 — 특히 사회·경제학자 — 이러한 대조적인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소위 '아시아적 가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종래 서구의 종교인이나 철학자들이 '아시아적 가치'를 종교적 측면이나 정치·윤리적 혹은 정치·철학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 반면에, 근래 서구의 사회·경제학자들과 아시아학 관련 학자들은 이를 주로 사회·경제적 혹은 조직문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담론은 앞서도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서구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서양적 관점에서 아시아 문화권이 지니고 있는 문화체계와 가치를 논의하고 있다. 이승환(2000, pp. 12~14)에 의하면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네 가지 유

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일련의 서양 학자들(de Bary, 1981; Hofheinz & Calder, 1982; Kahn, 1979; Vogel, 1979)이 아시아적 경제현상과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서 아시아적 가치를 거명하고 있다. 둘째, 일군의 동양 학자들이 아시아적 경제현상과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변인으로서 이를 지목하고 있다. 셋째, 일부 아시아인들(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이 탈식민지적 담론으로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 넷째, 서구 근대성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탈근대적 기획으로 이를 언급하고 있다(Tu, 1999; Hall & Ames, 1987).

이와 같은 주장에서 판단해 볼 때,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담론의 형태는 주로 사회·경제적 내지는 정치적 범주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는 역사적·지리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범위가 너무나 크고,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 종교, 사상 등으로 인하여 소위 아시아적 가치라는 확실적인 혹은 보편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문화와 사상은 시대의 흐름에서 다양한 내외적 환경과 요인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인 유추적·실체적 산물이다. 따라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담론은 시대적 혹은 사상적 흐름에 따라 논리가 달라짐은 물론 지극히 주관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일례로 제국주의가 편만하던 시대에 서구 자본주의의 문화적 기원을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에서 헤명한 베버(Max Weber)는 비록 중국에서 유교적 가치가 서구적 산업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에 동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았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중국이 산업화에 뒤쳐져 있던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자의 논리에 당위성이 맞추어졌으나, 그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후자의 논리에

“

아시아적 가치란 아시아 지역 특히 유교문화권 혹은 이 지역 아시아인의 행위 양식이나 일의 목표 및 수단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규범으로서 역사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개념화 내지 구체화된 경향이나 신념으로 볼 수 있다.

”

타당성이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양면적 논리는 아시아적 가치를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전개시키는 데도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아시아적 가치가 급속한 경제 발전에 원동력이었다는 순기능적 논리와 산업화의 지체 및 경제 위기 유발의 원인이었다는 역기능적 논리이다. 이러한 상반된 논리에 기초하여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담론은 서구지향적인 논리와 친아시아적인 논리로 대별되어 전개되고 있다.

2) 아시아적 가치의 순기능과 역기능

앞서 기술하였듯이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의 시발은 서구에서 비롯되었다. 이로 인하여 논쟁의 기저는 서구적 관점에서 아시아적 가치(협의의 개념으로 동아시아적 가치)가 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가 혹은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가이다. 일단 이 글에서는 서구인이 주장하는 '아시아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서구인의 이분법적인 주장을 검토하고 이를 아시아인의 입장에서 비판하고자 한다. 만일 아시아적 가치가 긍정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부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 그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정치·문화적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아시아적 가치는 유교문화권(동아시아)이 공유하고 있는 유교적 가치로 제한하고자 한다.

먼저 정치·문화적 측면에서 아시아의 가치에 대한 정치적 기능은 크게 정치·경제적 접근법과 정치·문화적 접근법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정치·문화적 접근법에 중점을 두고 논술하고자 한다. 정치·문화적 접근 논리에 의하면 동아시아의 정치적 전통은 통치자의 권위에 대한 백성의 가부장주의적 복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동아시아의 정치·문화적 특징으로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높은 도덕성, 가부장적 권위주의, 반대에 대한 불관용, 충성심과 통일성, 제도화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정치·문화적 전통이 동아시아 국가의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이런 요인으로 인하여 산업화에는 성공하더라도 서구적인 민주화는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의 동아시아 문화론자의 주장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외형적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심층적인 내면을 투시하면서 묘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유교의 정치·윤리와 체계에 있어서 핵심 요인인 권위와 복종에 의해 구축된 위계질서는 하나의 황금률로서 전통 사회의

모든 계층, 조직, 단위에 이르기까지 적용되었다. 서구의 정치·문화론자의 주장대로 이러한 전통이 유교문화권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교의 정치윤리가 바탕이 된 동아시아의 정치·문화는 순기능과 역기능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구적인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는 강력한 지도력,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반대에 대한 불관용, 제도의 미흡 등이 동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도 정치·사회체제가 미비하고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부정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정부와 지도자의 강력한 지도력은 식민지배 하에 와해되었던 정치·사회체제를 정비하거나 구축하는 데 견인력이 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요인이 지나쳐 정치권력이 일국화되는 전체주의나 독재주의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여전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행정가와 피행정가, 상사와 부하,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식 간에 권위와 복종의 수직적인 인간관계와 조직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나 다른 일면으로는 상호호혜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호혜적 특성을 근본으로 하여 유교의 정치·철학인 위민사상(爲民思想)과 민본사상(民本思想)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상호호혜성보다 권위와 복종이 강조될 때 정치인의 독재성과 전체성 및 도덕적 해이와 같은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 서구의 정치·문화론자의 주장에서는 이러한 역기능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일부 정치인들(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정치가들)은 서구의 정치·문화론자의 주장에 상반된 견해, 즉 앞에서 논의된 유교적 정치·윤리 및 원리에 기초한 요인으로 인하여 유교문화권 국가에서는 서구적인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서구의 학자들은 일본의 경제대국으로서의 등장과 동아시아 국가들(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동인으로 유교 문화의 긍정적 역할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소위 '유교자본주의'라고 명명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경제체제의 핵은 유교 문화에 바탕을 둔 가족중심주의와 공동체의식 그리고 유교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기강 유지, 근면성, 교육열이다. 이러한 요소를 동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모델 형성의 핵심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가족중심주의와 공동체의식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료 엘리트와 정부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된 반면에, 기강과 근면성 및 교육열은 유교적 노동윤리로서 경제개발정책의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역기능적 주장에 의하면 가족중심주의와 공동체의식은 폐쇄적인 가족이기주의와 이기적 집단주의로 변하여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연고주의와 정실주의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하였던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도래의 주된 이유는 '정실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인하여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금융공황에서 발생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것처럼 아시아적 가치는 어느 한쪽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양적인 면이 병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구 학자들이 보는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견해는 유교의 정치·윤리나 기본 원리에 근거한

논리라기보다는 유교 문화의 부정적인 특성이나 일부 유교사회에서 파생된 현상에 준하여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유교의 경전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논어(論語)에서는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을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여 군자가 되는 것에 두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봉건시대나 심지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문은 입신양명의 도구로 화하여 관료 학자나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어오고 있다. 유교적 가치가 이러한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적 가치를 논하는 대부분의 서구 학자들은 유교 사상의 본질을 투시하지 못하고 유교문화의 부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아시아 고등교육과 아시아적 가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은 아시아의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다. 학문을 숭상하는 유교적 가치는 동아시아 국가들(특히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에 있어서 교육열을 고취시켜 국가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급속한 고등교육의 팽창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으나, 지나친 교육열로 인하여 입시경쟁을 유발하고 사교육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유교문화권 국가들에 있어서 교육은 정치적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권을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물론 교육을 통한 인격 수양이나 학문 함양이 강조되었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의 중요한 기능은 관료 엘리트층을 산출하는 것이었다. 일부 서구 학자들은 급속한 경제발전의 견인차로서 관료 엘리트의 역할을 논하고 있지만 관료 집단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연고적 폐쇄주의 및 관준민비 사상과 사농공상의 수직적 봉건신분체계에 기인한 권위주

의는 부면적인 기능으로 부상되어 서구인이 일컫는 정실자본주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유교문화의 특성에 속하는 정실주의나 연고주의와 연계되어 대학 행정이나 대학의 조직문화에서도 그 기능과 역할이 음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 측면에서 볼 때, 정실주의는 온정주의로, 연고주의는 연대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온정주의는 동아시아의 유교문화권 대학 사회에서 행정가와 교수간, 선후배 교수 및 학생 선후배 혹은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정(情)으로써 친목과 화합을 강조하는 인정(人情)주의 문화를 심어 놓고 있으며, 연고를 기반으로 한 연대주의는 호의나 편애를 통하여 상호간 학문적 이득이나 사회·경제적 이권을 추구하는 동질적인 집단의 연대와 결속을 촉진시키고 있다(이정규, 2001; Lee, 2001).

그러나 유교문화권 국가들의 고등교육에서 정실주의나 연고주의는 이기적 가족주의나 이기적 공동체주의와 연계되어 부정적인 면을 노출시키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대학 행정에 있어서 정실주의로 인하여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행정 체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비민주적이며 불공정한 인사행정이 자행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대학 사회에서의 비판 문화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한국 고등교육의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정실관계에 매여있는 교수 집단에서는 제자나 후배 교수가 스승이나 선배 교수의 학문적 견해나 주장을 진솔하게 비판하거나 토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스승이나 선배 교수가 그들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학문 활동뿐만 아니라 학사 행정에 있어서 온정적으로 우대하거나 선처를 베푸는 반면, 제자는 스승의 이론이나 주장에 대하여 비판을 삼가하거나 자제하면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나타냄으로써 상호호혜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스승이나 선배 교수의 이론과 주장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상호간 연고나 정실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공생공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교문화권 국가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의 대학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수직적·폐쇄적 조직문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의사소통체계가 민주적으로 열려있지 못하고 독선적인 권위주의가 대학행정에 편만해 있다. 이러한 독선적인 권위주의와 정실주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학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대학행정의 정실주의의 편만함과 폐쇄적인 조직문화는 파벌주의 내지 학벌주의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교수 임용과정에서도 불공정한 사례를 도출하면서 대학간, 학문간, 교수간 파벌을 낳고 있다(이정규, 2001).

이상에서 고찰해 본 것과 같이 아시아적 가치는 동아시아의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직적 질서체계 유지와 상호호혜적 인간관계의 양면성을 강조하는 유교문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유대감과 친밀감이 돈독하여져 대학 행정과 조직의 유연성과 동질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반면에, 권위주의와 정실주의로 인하여 폐쇄성과 고립성을 지향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와 학력사회화로 인하여 학력경쟁이 심화되고 고등교육의 팽창이 가속화됨으로써 유교문화의 역기능적 요인인 독단적 권위주의, 이기적 가족주의, 연고적 정실주의, 폐쇄적 파벌주의가 팽배하여 고등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유교적 가치는 세계화의 흐름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조류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도 지장이 되고 있다. 아시아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시아적 가치의 부정적 특성보다도 긍정적 특성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시아 고등교육에서 이러한 문화적 요인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참고문헌)

- 문화관광부(1999). 『한국의 종교 현황』. 서울: 문화관광부.
- 이승환(2000). "아시아적 가치" 논쟁과 유교문화의 미래", 제 11회 한국학 학술회의, 『새천년 한국인의 정체성: 유교적 정체성과 글로벌 이슈』,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12~27.
- 이정규(2001). "유교의 정(情)의 개념이 한국 고등교육 조직 문화에 끼친 부정적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19(1), pp. 195-213.
- 이정규(2002). "머리말: 학력·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협의회에 붙여", 연구자료 RM 2002-1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Altbach, P. (Spring 2002).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izing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27, pp. 6~8.
- Davis, T. M. (2002). *Open Doors,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2001*. New York: International Education.
- de Bary, W. T. (1981). *Neo-Confucian Orthodoxy and the Learning of the Mind-and-Heart*.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de Wit, H. (Spring 1996). European Internationalization Programs,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4.

- de Wit, H. (1999). Changing Rationales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15.
- de Wit, H. (2002).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urope: A Historical, Comparative and Conceptual Analysis*. Westport: Greenwood Publishers.
- de Wit, H., & Knight, J. (1997).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in Asia Pacific Countries*. Luna Negra, Amsterdam: EAIP.
- Hall, D. L., & Ames, R. T. (1987). *Thinking Through Confucius*.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Hayward, F. M. (2000). *Preliminary Status Report 2000: Internationalization of U.S. Higher Education*. Washington D.C.: Amerocam Council on Education.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2001).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1*. Lausanne, Switzerland: IMD.
- Kahn, H. (1979). *World Economic Development: 1979 and Beyond*. London: Croom Helm.
- Knight, J. (Summer 2002). Trade Creep: Implications of GATS for Higher Education Policy,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28: pp. 5~7.
- Lee, J. K. (2001). Impact of Confucian Concepts of Feelings on Organizational Culture in Korean Higher Education, *Radical Pedagogy*, 3(1).
- Lee, J. K. (2002). The Role of Religion in Korean Higher Education, *Religion & Education*, 29(1). pp. 49 ~ 65.
- Scott, P. (ed.). (1998). *The Glob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Buckingham, UK: Open University Press and the Society for Research into Higher Education.
- The Council for International Education. (2000). *Student Mobility on the Map: Tertiary Education Interchange in the Commonwealth on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London: UKCOSA.
- Tu, W. M. (ed.). (1999). *Confucius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Vogel, E. (1979). *Japan as Number On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86). Chicago: Encyclopedia Britannica, Inc., p. 1123.

이정규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고등교육행정을 전공하여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및 홍익대 교육경영관리대학원 대학행정 전공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Korean Higher Education: A Confucian Perspective, Historic Factors Influencing Korean Higher Education*이 있으며, 최근에 발표된 논문으로는 *The Role of Religion in Korean Higher Education, Japanese Higher Education Policy in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Christianity and Korean Higher Education*이 있다.